현병주의 『實用自修四介松都治簿法』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전통회계

박세경*
kasmine@hanmail.net

〈目次〉

1. 머리말
2. 현병주의 생애와 시대 배경
3. 『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의 체제와 내용
4. 일제강점기 전통회계의 위상
5. 맺음말

主題語: 현병주(Hyun Byung-ju), 實用自修四介松都治簿法(The self-study of Songdo bookkeeping), 송도부기(Songdo Bookkeeping), 개성부기(Korean bookkeeping), 전통회계(traditional accounting)

1. 머리말

인류가 남긴 최초의 기록은 회계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회계 기록들은 사회 발전과 더불어 변화되어 오다가 중세 이후 상업의 양적, 공간적 확대와 더불어 복식부기로 발전하여 현대 서양부기의 기본이 되었다. 동양에서도 서양식 부기가 도입되기 전 각 사회의 상업 발달을 반영하는 고유한 장부 기록법이 있었다. 중국의 사각장(四脚帳)과 용문장(龍門帳), 일본의 대복장(大福帳)이 그것이며, 한국에도 "사개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으로 알려진 고유 회계기록체계가 존재하고 있었다[1].

한국의 고유 부기를 처음 소개한 사람은 현병주였다. 현병주는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 『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을 발간하면서 당시 한국의 상업 발전 정도가 일본이 도입한 서양식 부기보다는 사개송도치부법을 사용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서양식 부기는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2]. 현병주의 책 이후 일본인들이 한국 고유부기에 관심을 가져 고려시대에 세계 최고(最古)의 부기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3]. 또한 서양부기의 입장에서

*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1) 조익순·정석우(2006)『사개송도치부법의 발자취』博英社, p.1
2) 玄丙周(1916)『實用自修四介松都治簿法』德興書林、pp.1-2
3) 田村流水(1917)「高麗時代に複式簿記あり」『東京經濟雜誌』、pp.76-1911

사개송도치부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기도 하였다[4]. 조선총독부에서도 당시 조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상인들의 상관례를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병주의 "사개송도치부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5].

현병주에 대해 회계학계에서는『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을 중심으로, 문학계에서는 그의 소설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6]. 회계학계에서는 현병주의 저서가 실제 장부는 아니지만, 사개송도치부법의 원리를 충실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부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개송도치부법의 형식과 내용 등을 규명하는데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초에 박영진가에서 일기장, 장책, 주회계 및 보조부들로 구성된 장부가 발견되면서, 현재 학계에서는 현병주의 저서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복식부기의 최소요소는 갖춘 사개송도치부법에 대한 해설서로 파악하고 있다. 현병주는 1920년대 다수의 저작물을 남겼는데 국문학계에서는 이를 분석하여 대중계몽주의자로서의 그의 업적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7].『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병주의 생애 및 저술활동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하고, 서로의 연구 성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점에 유의하여 첫째, 현병주의『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의 이해 배경이 되는 그의 생애와 시대상을 살펴보고, 둘째,『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의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의 상황과 전통회계의 위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병주의 저서는 1916년 초간 발행을 시작으로 1919년, 1928년 10월에 2간과 3간이 발행되었다. 본고는 1916년 판을 이용하였다.

2. 현병주의 생애와 시대배경

현병주는『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으로 우리나라 고유 부기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회계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須藤文吉(1917)「高麗之誇-世界最古開城簿記」『學友會報』, 神戶高等商業學校 學友會.

4) 大森研造(1922)「開城簿記の起源について」『經濟論叢』14-1
大森研造(1923)「開城簿記の形式と內容」『會計』13-1

5) 善生永助(1924)『朝鮮人の商業』朝鮮總督府調査資料 第11集.

6) 윤근호(1968)「사개송도치부법연구: 현병주를 중심으로」『상경논총』7: 尹根鎬(1984)『韓國會計史硏究』韓國硏究院: 장경남(2013)「근대 초기 <임진록>의 전변 양상」『古小說硏究』36: 장연연(2015)『대중계몽주의자 현병주 연구』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익순·정석우(2006), 앞의 책.

7) 장연연(2015), 위의 논문

된다. 현병주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일제강점 초기 천안 읍내에서 흥남서시(興南書市)를 경영하다가 1910년경 서점 경영에 실패하고 일시 방랑생활을 거쳐 상경하여 각종 문필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학에도 능통하고 신학문에도 관심이 많았던 현병주는 우문관서회를 운영하면서 진기한 한적과 고서를 발굴하여 출판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역사소설에도 관심이 많아 직접 창작도 하고 각종 출판사에서 다양한 저술활동도 하였다. 특히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금수호연생(錦水胡然生), 호연생, 영선(翎仙), 허주자(虛舟子), 금강어부(錦江漁夫), 수봉(秀峯) 등의 여러 호를 가지고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여 총 45권의 저작물을 남겼다[8]. 그의 저술은 1916년『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과『초한풍진 홍문연』을 시작으로 소설에서 복서(卜筮), 실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백과전서적 저술가라 할 만하였다. 1920년대에는 소설 창작에 주력하여『박문수전』,『송도말년불가살이전』,『비난정감록진본』등 한국 고유 설화의 저본이 되는 소설들을 저술하였고,『수길일대와 임진록』,『단종혈사』와 같은 역사소설도 다수 집필하여 1920년대 많은 독자를 확보하였다[9].

현병주가 활동할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저술과 출판활동은 결코 쉽지 않았다. 통감부시대에 본격화된 식민지 검열행정은 1910년 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되면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10]. 강압적 무단통치가 시작된 배경 하에서 현병주가 다수의 저작물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일제강점기에 출판물을 발행하려면 원고난, 경영난, 검열난을 극복해야 했다. 당시 잡지·신문과 같은 정기간행물은 신문지법, 대부분의 잡지는 출판법의 허가를 받아야 발행이 가능하였고, 일제강점기 전 시기를 걸쳐 조선총독부의 엄격한 검열을 통과해야 했다. 식민지 조선은 1920년대에도 문맹률이 99%에 달하였으며[11], 당시의 문맹률은 "신문 한 장은 고사하고 일상 의사소통에 필요한 서신 한 장을 능수하는 자가 역시 백인에 1인이면 다행이라 하겠도다"라고 할 정도였으니 근대 계몽기의 문맹률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다. 문자 해독 능력을 가진 1%에서 조차도 사회경제문화적 이유로 각종 출판물을 향유 할 수 있었던 비율은 상당히 낮았을 것이다. 1910년대 각종 매체의 서적 광고를 보면 대부분 한학과 관련된 '당판(唐版)' 서적이나 유학경서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독자의 소설 선택에 있어서도 신소설과 고전소설이 대중을 점하고 있던 상황이라 일제의 검열은 차치하고라도 좋은 필자와 독자를 구하기는 어려웠다[12].

---

8) 장연연(2015), 앞의 논문, p.9
9) 장연연(2015), 위의 논문, pp.2-3
현병주 저, 정기숙 역(2015)『사개송도치부법』經文社, p.153
10) 검열연구회(2011)『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소명출판, p.20
11) 정진석(2012)「일제 강점기 출판환경과 법적 규제」『근대서지』6, p.23
12) 장연연(2015), 위의 논문, p.1

이런 상황에서 당시 출판계에서는 검열 우회 전략을 펼쳐, 정치서적 대신 학술, 종교, 취미, 족보, 소설, 일본계 번안·번역 소설 등을 대거 출판하였다[13]. 교육의 보급과 문자 해독률이 증가하면서 가독 능력을 가진 저변 인구가 확대되자 일반 민중에게도 신문물이 보급되었고, 소설뿐만 아니라 법학, 정치, 경제, 위생 등을 비롯한 실용적인 서적들이 발간되었다[14]. 현병주의 저술활동 배경에는 이런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현병주는 한국 고유문화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문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전통문화, 생활실용지식, 한문설화 등의 한문서적을 한글로 옮겨 널리 보급하여 고유문화 전승에 중요한 자료를 남겼다. 또한 대중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과학상식, 법률상식 등에 대한 저술과 역사소설 창작으로 생활과학과 역사 지식을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그 중 하나가 전통부기 해설서인 『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이었다[15].

현병주는 한국 고유의 것을 찾아 정리하고, 보편적 지식을 보급하려는 노력에 항간의 설화보다는 실증적인 자료를 많이 참조하여 역사사실에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하였다. 사개치부법 해설서의 발간도 그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 중 사개치부법은 다른 저서들과 특별히 내용이 구별되는 책이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필명을 가지고 집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16]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은 저서를 남겼고 사개송도치부법의 성격이 매우 다른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의 저술이었는지 의심의 여지가 남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의 체제와 내용

현병주의 『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은 한국 최초의 고유부기 해설서이다. 한국 고유부기로 알려진 사개송도치부법을 처음 언급한 것은 김대희의 『응용상업부기학전(應用商業簿記學全)』이다. 총론에서 그는 "우리나라는 송도인(松都人)의 발명으로 전국에 통용하는 소위 사개족치부(四介足致簿)라하는 법이 있으나 학리를 따라 설명한 자가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다[17]. 한국 상인들이 경제활동에 대하여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법은 사개다리문서, 사개다리치부,

---

천정환(2003)『근대의 책 읽기』푸른 역사, p.21

13) 장경남(2013), 앞의 논문, p.58

14) 정진석(2012), 앞의 논문, p.24

15) 장연연(2015), 앞의 논문, pp.55-57

16) 현병주 저, 정기숙 역(2015), 앞의 책, pp.154-155. p.157

17) 金大熙(1909)『應用商業簿記學全』義進社, p.2

사개문서(四介文書), 사계문서(四計文書)라 불리는 회계시스템이었다. 개성상인들이 사용하고 발전시켰으므로 사개송도치부법, 송도사개치부법, 개성부기, 송도부기이라고 한다. 치부법은 오늘날의 회계처리방법인 부기법을 말하며 치부법(置簿法, 致簿法, 致富法, 治簿法)이라 표기하기도 한다[18]. 일부에서는 고려 시대 개성에서부터 상인들이 사용했던 치부법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무리가 있다.

현병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을 저술하였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실제 장부를 참작하여 개성인인 김경식(金璟植)과 배준여(裴俊汝)와 함께 저술 및 검열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그들은 개성상인이거나 사개송도치부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19]. 현병주는 "조선 송도에 일찍 일종의 상업부기가 있었지만, 학술적으로 아직 전수되지 않고 있고 널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자들이 매우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의 저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20].

한국의 현존 장부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1786년 기록된『타급장책(他給長冊)』제3이며, 대한천일은행(大韓天一銀行) 장부가 남아 있는 정도였다. 사개치부법의 기장원리를 완벽히 밝혀줄 수 있는 분개장과 원장 및 결산제표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문서가 전해지지 않았고, 현병주의 저서 역시 부기 해설서로서 완벽한 장부체제는 예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전통부기에 대해서는 추론만 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초에 박영진가에서 일기장, 장책, 주회계(周會計) 및 보조부들로 구성된 거의 완벽한 상태의 장부가 발견되었으며, 일기장은 1887년부터 1912년까지의 분석이 가능해 현병주의 저서가 한국 고유 복식부기 설명서라고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21].

『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성부기는 복식부기의 특징인 거래의 이중성과 봉급(捧給) 평균원리(대차평균원리)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개송도치부법의 특징은 사개(四介, 四開, 四掛, 四卦)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개는 원래 건축용어로서 '네 모퉁이가 서로 연결되어 아주 가깝게 관련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개송도치부법은 네 가지 사항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복식부기라 할 수 있다[22]. 현병주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송도치부를 '사개'라고 하는데 그 명칭의 이유에 대해서는 송도상인들도 일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23]. 사개송도치부법에서 사개의 정의는 자산계정인 봉차질

18) 김성은(2019)「전통지식으로서 特徵에 관한 硏究」『경영법률』29-2, p.337
19) 현병주 저, 정기숙 역(2015), 앞의 책, p.5
20) 현병주(1916), 앞의 책, 序
21) 현병주 저, 정기숙 역(2015), 위의 책, p.4
22) 김성은(2019), 앞의 논문, pp.337-338
23) 현병주(1916), 위의 책, p.14

(捧次秩,) 부채와 자본계정인 급차질(給次秩), 수익계정인 이익질, 비용계정인 손해(소비)질이다. 사개에는 주는 사람인 채권자, 받는 사람인 채무자, 주어지는 것이 유형이거나 무형물을 포함한다. 받아지는 것도 유형과 무형을 포함하는 4가지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24]. 현병주는 이를 봉차가 1개, 급차가 1개, 이익이 1개, 손해가 1개이기 때문에 사개가 된다고 하였다[25].

장부의 구성도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뉘어 있으며, 주요부는 일기장(日記帳), 분개장(分介帳), 원장(元帳)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대차개념과 계정구별도 하고 있어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병주에 의하면 사개송도치부법은 기본적으로 주요부와 보조부, 대차관계가 서양식 부기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장부인 박영진가 장부조직이나 실제 계정도 이와 비슷하게 구성으로 되어 있다. 현병주에서 장부의 주요부와 보조부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26].

주요부에 속한 것	보조부에 속한 것
△ 日記帳 △ 分介帳(捧次帳, 給次帳) 元帳(帳冊) 結篨表 附掌記 △ 貯金通帳 △ 通帳(外上物品借入을 기록)	△ 現金出納帳 △ 物品去來帳 △ 委託物處理帳 △ 魚鹽收支帳 △ 會計帳(일부 거래 결산한 것) △ 損益計算帳(전체 交換貸借 試算한 것)

박영진가의 장부도 일기장, 외상타급장책(外上他給長冊: 원장)의 주요부와 보조장부인 각인회계책(各人會計冊), 외상초(外上抄), 전답문기등록(田畓文記謄錄), 각인물출입기(各人物出入記)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주요부와 보조부 및 실무장부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병주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27].

기장순서는 일기장(분개장), 장책(총계정원장), 시산(試算) 및 결산의 순서를 지키고 있다. 시산은 복식부기의 특징인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원리에 따른 장부의 자기검증기능이다. 결산은 회계책에 기입되어 있으며 현병주는 이를 보조부라고 말하고 있다. 현병주의 책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이는 주식회사 회계가 아니라 중소상점용이라는 점에서 외부보고용이라기보다는 내부보고용인 점이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장부마감도 설명

24) 김성은(2019), 앞의 논문, p.348
25) 현병주(1916), 앞의 책, pp.14-15
26) 현병주(1916), 위의 책, pp.15-16
27) 김영화(2018)「개성부기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방법」『회계저널』27-5, p.77

하고 있지만, 후록 복부(後錄 復簿)의 처리에 혼동이 있다. 즉 마감기입과 관련한 후록의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현병주에서는 그 외에 몇 가지 설명 오류, 기입 누락 및 오류가 있다[28].

일기와 장책에서는 계정과목과 분개용어(入, 去) 및 거래대상과 금액을 간단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금거래는 말미에 입출금을 뜻하는 상(上)과 하(下)라는 용어로 파악할 수 있으며, 대체거래는 등자법(鐙子法, U자형)으로 묶어서 처리하였다. 매일 시재금을 파악해서 일초에 전일고를 입금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상하표시만으로 일기 자체가 현금출납장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하였다[29].

장책에서 실제 장부 처리는 사개원칙에 따라 네 가지 계정별 원장인 외상장책(外上帳冊), 타급장책, 현금출납장인 일기장(日記帳), 계정잔액 집계책인 회계책(會計冊), 이익과 손실 내역서인 봉차급표(捧次給表)에서 행해졌다. 네 가지 계정과목으로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인 봉차, 부채와 자본계정인 급차, 손익계산서의 수익계정인 이익과 비용계정인 소비가 있다. 또 각 계정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의 질(秩)자를 사용하여 의인화 하였다. 즉 받는 사람, 주는 사람, 주어지는 것, 받아지는 것의 네 가지를 이용하였다[30].

사개송도치부 장부는 당시 동아시아의 전통 기록형태인 세로쓰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존하는 사개송도치부법 장부는 40내지 50목의 지수로 한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하단 각각 두 개씩 구멍을 뚫고 종이를 손끝으로 꼬아서 끈으로 철하게 되어 있다[31]. 개성부기는 특히 호산이라는 독특한 숫자를 사용하였으며 서양부기보다 많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병주는 이 호산과 당시 사용하던 여러 회계부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현병주의『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의 장부처리 내용을 보편 현대 회계에서 채용하고 있는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식 분개를 하고 있다. 개성부기는 채권과 채무에 많은 인명계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품계정도 개별 상품명을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매입에 관계되는 상품은 매득(買得) 계정, 매출에 관계되는 계정은 방(放) 또는 방입(放入) 계정을 사용하였다[32]. 이를 볼 때는 당시 전통부기는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병주의 개성부기에서 총계정원장을 외상장책(자산원장)과 타급장책(부채원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장부마감과 결산에 대해 명료하지 못한 점, 결산서, 즉 재무제표가 미비한 점에서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의 상업 발전 정도가 이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경제활동의 차이를 알 수 있다.

---

28) 현병주 저, 정기숙 역(2015), 앞의 책, p.5
29) 권순백(2009)「송도 사개치부법과 이태리 베니스부기법의 발전과정 비교 분석」『경영교육연구』58, p.373
30) 김성은(2019), 앞의 논문, p.338
31) 김성은(2019), 위의 논문, p.344
32) 현병주 저, 정기숙 역(2015), 위의 책, pp.5-6

사개송도치부법은 두 개의 원장인 이원장제도(二元帳制度)를 기본으로 하고 현금식 분개를 하였기 때문에 달리 현금계정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현대 부기와 비교했을 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장부 가운데 일기장은 초일기와 중일기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초일기는 영업일지에 해당하는 단순한 거래만 기술하였다. 중일기는 장서한 일기책으로 장책에 기록하기 전 사전에 기록하여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병주는『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에서 이 일기가 모든 치부의 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기장은 신식부기의 일기장과 분개장을 합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33]. 장책은 복식부기의 총계정원장에 해당한다. 외상장책은 나중에 갚아야 될 장부이고, 보조장부에는 현금출납장, 물품거래장, 위탁물처리장, 어음수지장 등이 있다. 현존하는 장부에서는 주는 사람과의 거래장부인 타급장책과 받는 사람과의 거래장부인 외상장책을 분권하기도 하지만 합본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34].

송도치부법은 주요부와 보조부의 기입방식이 현대 서양 부기의 차변, 대변 표기와는 차이가 있다. 분개의 경우 입출의 의미를 가진 입거(入去)로 표시하고, 현금거래를 1행으로 분개하였고, 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입거양방 별행으로 분개하였다. 거래사실을 장책에 합쳐서 기록하여 인명별로 인출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35]. 결산장은 회계책에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다시 한 번 수치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이 순이익을 자본주 계정에 이체하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결산장(決算帳)의 사전적 검증절차가 현대 회계처리시스템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36].

현대 부기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인 비용, 수익 계정으로 나뉘어 있다. 현병주의 해설에 의하면 송도부기는 총계정원장인 장책과 일기장에서 모든 거래정보의 의미가 나타나는 현대 부기의 재무보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회계책에서 작성한 재물기록(財物記錄)을 포함한 급차질· 봉차질부(捧次秩簿)의 모든 기록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송도부기에서도 현대적 이익분배와 유사하게 주기적으로 손익을 배분하여 경영과 수익의 변동과 잉여금의 배분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다.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결산장의 이익질과 소비질에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개송도치부법의 초기는 거의 모든 기업이 개인기업의 형태였고, 형식상의 주체로서 금궤를 사용하였다[37].

---

33) 현병주(1916), 앞의 책, pp.16-17
34) 김성은(2019), 앞의 논문, p.345
35) 김성은(2019), 위의 논문, p.345
36) 김성은(2019), 위의 논문, p.345
37) 김성은(2019), 위의 논문, p.346

현병주의『사개송도치부법』에서 모든 거래는 현재 복식부기원리의 기본적 가정인 화폐측정을 따르고 있다. 상품거래 예시에서 화폐측량의 단위인 1원(圓), 1전(錢), 1리(厘)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천일은행 장부의 1원(元), 1전(錢), 1리(理)의 표시에서도 알 수 있다. 개항 전후로 상업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외국 상인과 상품의 유입 속에서 당시 상인들은 인삼을 비롯한 특정상품과 포목, 전곡(田穀), 잡화, 해산물 등 수많은 종류의 물품을 취급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에 대한 매매와 거래의 확대로 개별 상품의 가치로 산정해서는 구입시의 취득원가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은본위제도에 입각하여 화폐로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재물기록에서 보듯이 시가보다 낮은 저가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회계관습은 오늘날 보수적이고 안전한 회계처리 방법인 저가법의 적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38].

현병주의 저서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현병주의 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은 당시 출판 유행이나 그 자신의 저서들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성격이 다른 책이다. 한국에도 서양부기 못지않은 실용적인 전통부기가 있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지만, 얼마나 많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39]. 또한 현병주의 저서가 과연 한국의 고유부기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더 진척되어야 한다. 그의 저서 제목에서 보듯이 한국 고유 부기는 사개송도치부법이라고 하였지만 그 원형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현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또한 현존하는 자료를 가지고 한국 고유부기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복식부기에 부합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복식부기를 생성시킨 요인에 대한 검토, 한국 부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중국의 회계사정, 한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서양식 복식부기 교과서 및 기타 관련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40].

4. 일제강점기 전통회계의 위상

1910년 일본에 병합되기 전 한국에는 근대적 의미의 회계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양식 복식 부기가 도입되기 전에도 한국에서 상업을 위한 회계제도 및 장부체계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민간에서 통용되던 전통부기가 현병주의 소개로 사개송도치부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현병주 이후 선행 연구들은 한국 고유의 회계방법인 '사개송도치부법'이

38) 김성은(2019), 앞의 논문, pp.346-347
39) 장경남(2013), 앞의 논문, p.59
40) 조익순·정석우(2006), 앞의 책, p.5

옛날부터 개성상인들 간에 비전되어 병합 이전까지 일부상인들과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에서 사용된 서양 복식부기에 버금가는 회계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개송도치부법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중심으로 생성 발달하였기 때문에 '개성부기' 혹은 '송도부기'라고도 한다고 통설로 되어 있다[41].

복식부기는 13~14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한국 고유의 치부법인 사개송도치부법은 그 근본원리에서 서양의 복식부기와 부합되는 복식부기제도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서양의 그것보다 우수하다고 보기도 한다[42]. 전통 회계의 위상 문제와 관련하여 그 기원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데, 사개치부법의 고려시대 기원설, 조선 초기 기원설, 조선 중기 기원설, 심지어 이탈리아 복식부기성립에 사개송도치부법이 영향을 주었다는 설까지 출현하였으며[43], 서구와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부기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한국의 고유치부법인 사개송도치부법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상인들이나 관청에서 사용된 회계문서의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대한천일은행에서 1899년부터 1906년까지 사용한 장부도 송도치부법으로 기록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44].

전통회계에 대한 전제는 적어도 고려부터 발생하여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사농공상의 계급사회로 상공업을 천시하는 풍조로 인하여 상인이라는 신분은 말업 종사자로서 일상생활을 비롯한 모든 것이 차별을 받고 벼슬길에도 오를 수 없는 최하위에 계층이었다. 사개송도치부법은 고려가 멸망하고 성립된 조선이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삼게 되면서 더욱 쇠퇴의 길을 걸었다. 즉 조선이 성리학과 농업에 기반을 둔 계급차별과 비유동적인 사회로 고착되면서 상업은 더욱 천시되었고 사개송도치부법과 같은 비농업 실용지식은 관심과 저술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상업 쇠퇴에 따른 필요성 저하로, 개성이라는 특정 지역의 상인들 사이에서만 근근이 구전으로 전래되어 오다가 1900년 전후에 도입되기 시작한 서양부기에 밀려 사용되지 못하였다는 논리가 주류이다. 그러나 이에는 당시 고려와 조선의 사회, 경제적 차이와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국제사회의 경제변동 및 상업의 관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개송도치부법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보아 중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라 고려전성기 수도였던 개성에서 당시 상류계층인 왕후와 귀족, 부상들의 상업활동과 금융활동을 기반으로 생성 발전되었

41) 宣炳完(1979)「韓國 近代企業 會計制度 形成過程」『광장』78, p.49
42) 김성은(2019), 앞의 논문, p.353
43) 조익순·정석우(2006), 앞의 책, p.1
44) 조익순·정석우(2006), 위의 책, p.3

으며, 일본자본주의 경제 침략 이후 1910년대까지 존속하였다는 논리이다[45]. 이런 논리는 한국 전통 부기의 과거와 현재의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오히려 해치는 것이기도 하다. 전통문화가 단순히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우수한 것은 아니며 이는 당시의 역동성을 간과한 소치로 볼 수 있다. 박영진가의 장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확실한 사료 없이 막연히 이어져 온 통설로 이렇다 할 증거조차도 없다가 장부 발견이후 오히려 이 주장들이 보다 고착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박영진가 장부도 19세기 후반의 것이라 이런 설을 뒷받침하기에는 확실하지 않으며 좀 더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박영진가 장부와 현병주의 해설서는 20여 년의 시간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많다. 이는 오히려 통일된 회계제도로서의 사개송도치부법에 대한 반증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개성상인들의 사개송도치부법에 관해 정리한 최초의 문헌이 현병주의『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병주의 사개송도치부법이 나오기 전 한국인이 쓴 근대 복식부기 교과서가 이미 출판되었다. 임경재(任璟宰)의『신편은행부기학(新編銀行簿記學)』(1908),『간이상업부기학(簡易商業簿記學)』(1908),『최근상업부기(最近商業簿記)』(1913)와 김대희(金大熙)의『응용상업부기학(應用商業簿記學)』(1909)이 그것이다[46].

임경재는 그의 저서에서 한국 고유치부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인이 관용하는 부기는 그 기록방법이 조잡불완하고 착오가 많아 평소 재산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다...."[47]라고 하였다. 김대희는 "우리나라는 송도사람의 발명으로 전국에 통용되는 사개족치부(四介足治簿)라는 법이 있으나 그 학리를 따라 설명한 것이 없다. 서양부기법은 갑오경장시에 각아문부를 조사정돈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하였으나, 그 방법에 불과하고 대차의 원리를 아는 자가 전무하다. 감히 말하건대 계산기장은 하나의 수단이다. 오백년을 서양부기를 알지 못하고도 태평성대로 백업이 흥왕하였다 하여 그 학문을 경시하는 자가 있으나, 약육강식하는 경쟁의 때를 당하여 구규(舊規)를 고수하고자 하는 자는 문명의 적이오 망국의 민이다. 물론 그 이치를 배우고 발달한 바를 보면...."[48]. 이를 통해 볼 때 두 사람은 모두 한국의 고유치부법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경재와 김대희의 부기교과서는 완전한 서양식 복식부기 체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상업부기 책과 같은 용어를 많이 수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현병주의 사개송도치부법은 한자로 수치와 거래내용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해설내용은 서양식 복식부기와 대동소

45) 宣炳完(1979), 앞의 논문, p.49
46) 조익순·정석우(2006), 앞의 책, p.15
47) 조익순·정석우(2006), 위의 책, p.16
48) 金大熙(1909), 앞의 책, pp.2-3

이하고 그 내용 일부가 이들의 저서와 유사한 점이 있다. 한국의 사개송도치부법이 본래 복식부기와 같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당시 부기책을 통해 복식부기를 배워서 한국 고유치부법을 해설하는 데 원용하였는지 의문이 든다[49]. 즉 현병주가 그의 저서를 서술할 당시 이미 서양 부기가 많이 확산되었고 사개송도치부법에도 그 영향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개치부법이 중국과 서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부기법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1900년대의 상업부기서와 현병주의 저서를 살펴보았을 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서양 부기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일제의 강제병합 이후 공포된 회사법 이후에 근대적인 회사체제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항기인 1883년 유길준이 회사설(會社說)을 한성순보 제3호에 게재하였고 많은 개화파 인사들이 각국 회사제도를 연구하여 국내에 소개하였다. 또한 구미 각국과 일본 등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기업들이 조선과 통상을 위해 활동하였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들과 활발한 교역을 하던 객주나 상인들은 근대 회사제도와 회계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50]. 개항기에 객주들은 자본을 축적하면서 외국상인들의 상권 침탈과 객주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였다. 이 객주 단체가 객주상회소(客主商會所)로서 정부와 상호보완 관계 속에서 개항 이후 상회, 상회사, 상법회사, 신상회사(紳商會社), 상법회소(商法會所)등의 명칭으로 설립되어 외국 상인의 침입으로부터 내지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51].

갑오개혁 이후 객주는 주요 업무인 위탁매매 외에도 도매업, 중개업, 창고업, 운수업, 은행업 등 여러 가지 업무에 종사하였다. 객주상회사는 주요도시와 개항장에 설립되었으며 외국상인과 거래를 통한 자본과 신문물을 받아 들여 개항장 객주들이 설립을 주도하였다. 한국에서의 이권 확대를 노리는 일본자본 및 청국, 러시아 상인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규모와 자본을 집약시킨 근대화된 회사를 세워서 경제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근대화된 회사를 설립하여 객주 영업을 확대, 강화하였다. 객주상회사는 독립된 회사명과 상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근대적인 자본모집과 상업장부를 통한 회계관리, 전국적인 주식발행을 통한 주식회사를 세우기도 하였다[52].

객주들로 대표되는 민족상인들은 개항 이후 일본상인의 진출이 적극화되자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각에서 회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이와

49) 조익순·정석우(2006), 앞의 책, p.19
50) 김성은(2017)「開港期의 會社制度 硏究」『기업법연구』31-2, p.38
51) 김성은(2017), 위의 논문, pp.38-39
52) 김성은(2017), 위의 논문, p.39

때를 같이하여 개화파 인사들도 서구의 회사조직을 소개하면서 근대적 회사의 설립을 주장하였다. 서구의 회사제도를 한국에 처음 소개한 것은 유길준으로 1882년 "회사규칙(會社規則)"과 앞서 말한 "회사설"이 그것이다. 유길준은 회사설에서 주식회사를 비롯한 회사제도를 소개하였고, 회사규칙에서는 상선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성순보의 회사설에서 유길준은 회사 설립의 일반론을 피력하면서 회사설립 정관 5개관을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3관이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공고에 관한 사항이었다[53]. 이를 볼 때 개항 이후 상인들과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서양식부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항장에서 외국 자본과 접촉을 하려면 서구식 부기에 대한 이해와 영향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1880년대 초 상사, 공사(公社), 공사(公司) 등의 명칭을 가진 새로운 상업조직이 등장하고 국내 산품을 전국 각지에 매매하고 외국으로 상품 수출입도 하는 유통회사도 운영되었다. 부산을 비롯한 개항장에는 서구의 근대적 회사조직을 가진 수많은 일본, 미국, 청국, 러시아 상인들이 서구 근대 공장제 상품으로 가지고 와서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객주들도 근대적인 회사설립을 서둘렀다. 비록 대부분 단명하기는 했지만 부산과 같은 개항장에는 해운업, 상업유통, 무역업 외에 기선회사와 보험회사까지도 있었다[54].

개항 직후부터 무역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일본을 비롯한 외국상인들의 진출로 사상(私商)의 대응도 크게 변화하였다. 사상을 대변하는 객주들은 객주상회사를 결성하여 일본상인들의 상법회의소와 대항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조직뿐만 아니라 회계측면에서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완전한 서구 복식부기는 아닐지라도 보다 완비된 장부체계가 필요했을 것이다.

대한천일은행을 위시해 부산의 객주들은 1908년 구포를 중심으로 한 물산객주(物産客主)와 지주 70여 명이 자본금 25,000냥을 출자하여 지방 금융인 구포저축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구포저축주식회사는 예금, 대금, 어음할인 등 근대 은행업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객주상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1912년 구포은행으로 명칭을 바꾸어 지방은행의 시초가 되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일본상업자본 침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려 했다면[55] 회계제도 역시 어느 정도 서구식 체제를 적용하였을 것이다.

한국에서 근대적 회계법은 갑오개혁 이후 1895년 3월 법률제2호 회계법이었다. 이 법령으로 국고와 왕실의 회계가 분리되었으나 기업회계법은 아니었으며 국가의 예산회계제도를 규정

53) 김성은(2017), 앞의 논문, pp.40-41
54) 김성은(2017), 위의 논문, p.43
55) 김성은(2017), 위의 논문, p.51

한 것이었고, 아직 지방과 세관에는 시행하지 않았다[56]. 한국에서 근대적 회계방식을 처음으로 사용한 곳은 1878년 부산에 개설된 제일은행 부산 지점에서였다. 이후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은행들이 일본의 근대적 기업회계제도를 채용하였지만, 이는 한국 상업계 전반까지 포함하는 회계제도는 아니었다[57].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근대적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킨 것은 일제당국이었다. 일본은 식민 통치라는 국가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회사령, 출판법 등으로 조선의 근대화 및 식민지 경제 종속을 위한 작업을 하였고 서양식 부기의 도입도 그 일환이었다. 병합 이후 일본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제도를 한국에서 공포, 시행하였는데 1912년의 제령(制令) 제7호로 공포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도 그 중 하나였다. 이는 오늘날의 기업회계제도와 같이 기업회계원칙이나 재무제표규칙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 아니고 근대기업회계제도의 초기단계로서 일본상법 규정에 따라 골격을 갖춘 상법회계제도였다. 민사령 중 기업회계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조선민사령 제1조 8호 상법과 10호 상법시행법이었다[58].

상법 중에서 회계처리방법과 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는 상법총칙편(商法總則編)의 5개 조항(제25조~제29조)과 회사편의 9개 조항(제190조~제198조)이었다. 총칙편 제5장에서는 상인일반에 관하여 상업장부제도를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상업장부의 비치 및 기장(제25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시기와 재산목록의 부가(제26조), 배당기 마다의 배당목록, 대차대조표의 작성과 상업장부의 제출(제27조), 상업장부 및 서류의 보존(제28조)이었다[59].

회사편 제4장 주식회사 제4절 회사의 계산에서는 총칙의 규정에서 나아가 모두 강행규정으로서 주식회사의 회계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고 신중한 규정을 두었다. 그 내용은 재무제표(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준비금 및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에 관한 의안)의 제출 비치 및 사열(査閱)과 승인 및 공표(제190~제192조), 재무제표에 대한 임원의 책임해제(제193조), 준비금의 적립(제194조), 배당조건(제195조, 제197조), 건설이자의 배당(제196조), 업무 및 재산상태의 검사(제198조)이다[60]. 이렇듯 정치하게 규정하고 있어 아직 민족자본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대 회계제도에 익숙하지 않았던 전통부기는 밀려나지 않을 수 없었다.

1938년 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상법전(商法典) 제1편 총칙과 제2편 회사에 수정을 가하여, 기업회계제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이 도입되었고 이전의 미비한 점을 완비 및 정비하

56) 宋炳基 외 編著(1970)『韓末近代法令資料集 I』大韓民國國會圖書館, pp.291-297
57) 宣炳完(1979), 앞의 논문, p.49
58) 宣炳完,(1979), 위의 논문, p.50
59) 宣炳完,(1979), 위의 논문, p.50
60) 宣炳完(1979), 위의 논문, p.50

였다. 이때 개선된 내용은 총칙편에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자의 서명요구(제33조 3항)와 감가상각제도(제34조 2항)의 도입이었다. 회사편에서는 재산평가에서 원가주의와 시장주의(제285조), 이연재산개념의 도입 및 상각방법(제286조), 사채발행차손의 이연 및 상각방법(제287조), 건설이자의 이연 및 상각방법(제291조 제3항), 준비금의 사용제한(제289조), 신주에 대한 건설이자배당과 배당기간의 연장(제292조), 회사와 사용인간의 채권에 대한 종업원의 선취특권(제295조) 등이었다[61]. 이후 한국의 회계제도는 서양 복식부기가 그 기준이 되었으며 관공서, 기업, 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경제주체들의 회계처리 기준이 서양부기가 되었다[62].

1900년대 초에 이미 서양 부기서가 도입되었고 민사령 도입으로 근대회계제도가 정착되어 가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6년 민간에서의 활용을 위해 개성부기의 학습을 권고하기 위한 부기책을 출판하였다는 것에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서점을 경영하면서 다양한 서적을 집필, 출판한 그는 사개송도치부법을 저술할 당시 회계의 필요성과 신식회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그의『사개송도치부법』에서도 곳곳에 보인다[63]. 현병주는『사개송도치부법』에서 송도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 책을 편집하였다고 한다. 당시 조선에는 관청부기를 제외하고 전문적으로 배울만한 부기법이 없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부기도 통일되지 않아 서로 알아보기가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송도치부법만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만하여 사개치부법의 실천적 방법과 기본원리를 정리하여 중소규모의 상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에게 널리 소개하고 보급할 목적으로 발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64]. 그의『사개송도치부법』통론에는 치부법(治簿法)을 곧 부기식(簿記式)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현병주의 주장과 같이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상업 발달이 미진하여 한국인들의 경제 규모가 서양복식부기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서양부기 자체의 보급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2년 공포된 상법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대부분 중소규모의 상인들 입장에서 서양부기는 배우기에 번거롭고 적용하기에 불편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책에서 현병주는 최종적으로는 서양식부기가 마땅히 보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언어와 학습의 복잡성을 들어서 서양 부기는 상업이 충분히 발달된 뒤에 보급하고 당분간은 보다 단순한 송도부기의 보급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65].

한국 고유 회계시스템이 사회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기반을

61) 宣炳完,(1979), 앞의 논문, pp.50-51
62) 김성은(2019), 앞의 논문, pp.349-350
63) 현병주(1916), 앞의 책, pp.2-13
64) 현병주(1916), 위의 책, pp.1-2
65) 현병주(1916), 위의 책, pp.1-3

둔 상공업 천시의 풍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전통 회계가 하나의 지식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었다. 그러나 근대산업사회와 전통사회에서 요구하는 회계처리는 엄연히 달랐으며 이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전통 부기는 보편적 회계제도 및 관습으로서 정착되지 못했다.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개항과 일본의 침탈일 것이다. 즉 개항과 함께 개성부기도 서양 문물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초창기의 조선은행, 한성은행 및 대한천일은행은 전통부기의 색채가 강했으나, 일본 제일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은행은 서양식 부기에 따른 회계처리를 요구받게 되었다. 1906년 공포된 은행조례는 서양식 영업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신문 등에 발표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에 실용적, 환경적 이유로 개성부기는 실무에서 점차 사라지고 서양부기가 한국에 안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66]. 결국 사개송도치부법은 일부 상인들의 회계법으로 머물다가 현병주에 의해 한국의 고유문화를 대변하는 하나의 유물로 남고 말았다[67].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의 상법회계제도가 국내의 일본 기업 및 민족기업에 점차 보급·적용되었고 해방 후 한국의 회계제도는 일제하의 일본상법회계제도를 근간으로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5. 맺음말

한국 전통회계에 대한 연구의 효시는 현병주의『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이었다. 이 책에서 현병주는 송도인들 사이에서 전래되어오던 송도부기, 일명 사개송도치부법의 존재를 알리며 관심을 환기시켰다. 현병주의 저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치부법의 기원, 장부조직과 특징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한국 전통치부법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현재까지도 현병주의『사개송도치부법』은 송도부기의 해설서로서 그 기준이 되고 있다.

저자인 현병주에 대한 이해는 그의 저서와 이를 통해 가지는 전통회계의 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병주는 전통과 신문물의 접점에 있으면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는 전통과 실용의 대중화를 위해 역사소설과『사개송도치부법』이라는 해설서를 남겼다.『사개송도치부법』은 그의 대부분의 저술들과는 상당히 성격을 달리하는 책이다. 그 이해를 위해서는 그가 기술한 다방면의 저술 맥락 속에서 현병주에 대한 연구가

66) 현병주 저, 정기숙 역(2015), 앞의 책, p.6
67) 김성은(2019), 앞의 논문, p.350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은 실제 장부는 아니지만 한국전통치부법에 대해 정리한 최초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개성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전통치부법의 대강의 틀을 설명하였다. 한국의 상인들은 장부처리에 있어 현대복식부기만큼 정치하지는 않지만, 네 가지 개념(사개)을 가지고 장부처리를 하였다. 장부조직 또한 일기장, 분개장, 결산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의 회계장부 및 최근 발견된 박영진가의 장부는 세부조직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한국 전통치부법이 현병주가 설명한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는 한국 고유치부법이 복식부기라는 전제 하에 숫자 분석의 틀을 더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리된 숫자와 기록된 언어 너머에 대한 추론과 상상력"[68]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본의 한국 침탈과 서양부기 적용 이후 식민지 조선의 일상적 경제공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항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1900년대 초에 서양 부기책이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병주의『실용자수사개송도치부법』이 나오게 되었다. 그 이유로 현병주는 서양 부기 학습의 번거로움과 보급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일제의 서양부기 강압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여전히 사개송도치부법으로 대변되는 전통치부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당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상업발달이 전통장부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했을 것이란 추측 할 수 있다. 사개송도치부법은 민간전승회계로서 맥을 이어오다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하나의 역사유물로 남고 말았다.

【參考文獻】

검열연구회(2011)『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소명출판
金大熙(1909)『應用商業簿記學全』義進社
宋炳基 외 編著(1970)『韓末近代法令資料集Ⅰ』大韓民國國會圖書館
조익순·정석우(2006)『사개송도치부법의 발자취』博英社
천정환(2003)『근대의 책 읽기』푸른 역사
玄丙周(1916)『實用自修四介松都治簿法』德興書林
현병주 저, 정기숙 역(2015)『사개송도치부법』經文社
권순백(2009)「송도 사개치부법과 이태리 베니스부기법의 발전과정 비교 분석」『경영교육연구』58
김성은(2017)「開港期의 會社制度 硏究」『기업법연구』31-2
_____(2019)「사개송도치부법의 전통지식으로서 特徵에 관한 硏究」『경영법률』29-2

68) 최종렬(2014)「사회학의 미시화-『편의점 사회학』전상인, 2014, 민음사」『한국사회학』48-5, p.343

_____(2019)「전통지식으로서 特徵에 관한 硏究」『경영법률』29-2
윤근호(1968)「사개송도치부법연구: 현병주를 중심으로」『상경논총』7
尹根鎬(1984)『韓國會計史硏究』韓國硏究院
장경남(2013)「근대 초기 <임진록>의 전변 양상」『古小說硏究』36
장연연(2015)「대중계몽주의자 현병주 연구」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진석(2012)「일제 강점기 출판환경과 법적 규제」『근대서지』6
최종렬(2014)「사회학의 미시화-『편의점 사회학』전상인, 2014, 민음사」『한국사회학』48-5
大森硏造(1922)「開城簿記の起源について」『經濟論叢』14-1
_____(1923)「開城簿記の形式と內容」『會計』13-1
善生永助(1924)『朝鮮人の商業』朝鮮總督府調査資料 第11集
須藤文吉(1917)「高麗之誇-世界最古開城簿記」『學友會報』, 神戶高等商業學校 學友會
田村流水(1917)「高麗時代に複式簿記あり」『東京經濟雜誌』76-1911

논문투고일 : 2019년 09월 2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10월 15일
1차 수정일 : 2019년 11월 07일
2차 수정일 : 2019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18일

〈要旨〉

현병주의『実用自修四介松都治簿法』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전통회계

박세경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만의 상업과 그 기록이 있다. 한국 상인들도 그들의 경제활동을 기록하는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고유 부기법으로 알려진 것이 개성부기이다. 1916년 현병주는『實用自修四介松都治簿法』에서 한국 부기 내용을 총정리 하였다. 그의 저서는 실제 장부는 아니지만 해설서로서 사개송도치부법의 원리를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현병주는 한국 고유문화와 실용 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많은 저술활동을 하여 대중에게 근대 지식을 전파하였는데, 사개송도치부법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사개송도치부법은 봉차, 급차, 이익, 손해의 사개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의 용어로 자산, 부채, 이익, 비용에 해당한다. 대차개념과 계정구별도 하고 있으며 주요부와 보조부로 장부가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양 복식 부기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고유 부기는 전통적으로 상업을 천시한 사회 인식, 경제 발전 단계와 맞물려 개항기까지도 보편적 관습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 이후 식민 통치를 위한 근대회사제도 및 서양부기의 도입으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Traditional Accounting of Japanese Colonial Period in Songdo Bookkeeping

Park, Se-Kyoung

Every country has its own commerce and its records. Korean merchants also had an accounting system that records their economic activity. Known as the Korean bookkeeping method, the individual bookkeeping is known. In 1916, Hyun Byung-ju summarized the contents of Korean bookkeeping in『實用自修四介松都治簿法』. His book is not a real book but a commentary that faithfully explains the principles of Songdo Bookkeeping. Hyun Byung-ju, who was activ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ried to disseminate Korean culture and practical knowledge to the public. He did many writings and spread modern knowledge to the public, and Songdo Chilbu was a part of promoting Korean culture.

The law of bankruptcy law consists of four concepts: bundling, sequencing, profit and loss. In today's term, it corresponds to assets, liabilities, profits, and costs. The balance concept and account classification are also carried out, and the books are divided into main and subsidiary books. Therefore, it is not perfect, but it is understood that it follows the Western double bookkeeping principle.

Korea's inherent bookkeeping was not a universal custom even in the opening period, in combination with the traditionally neglected social aware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stages.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the modern company system for colonial rule and Western bookkeeping were not practical and disappeared.